망해마을 모습.

망해사지 석조부도(보물 제173호).

탑이나 석조부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단.

소형 석조부도.

처용 설화의 고향

불교문화콜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38 영축산 망해사

망해사 대웅전.

헌강왕 '용 위해 절 지으라' 명
13가구 마을 사람 모두 불자

울산 영축산에 있는 망해사는 처용설화와 관련이 깊다.

신라 49대 헌강왕 때는 태평성대였다. 하루는 헌강왕이 개운포(開雲浦)에서 놀이를 즐기다가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일관(日官)에게 물으니, "이는 동해 용이 조화를 부리는 것이니, 마땅히 좋은 일을 해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왕이 용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절이 망해사다. 이에 구름과 안개가 걷혔다. '개운포'의 지명 유래는 이 설화와 관계된다.

그러자 동해의 용이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다. 그리고 아들 중 하나가 왕을 따라 경주로 들어가 왕의 정사를 도왔다. 그때 왕을 따라간 용왕의 아들이 처용(處容)이다. 이러한 처용설화는 망해사 대웅전 외부 벽화에 잘 나타나 있다.

망해사에서 동해안을 바라보면 청량천을 따라 개운포가 보인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처용암도 보인다고 한다. 대웅전 뒤로 언덕을 하나 올라가면 망해사지 석조부도(보물 제173호)가 있다. 보기 드물게 이 부도는 동부도와 서부도가 나란히 있는데, 두 부도의 모양이 유 사 하다. 마치 쌍 둥 이 같은 모습이다. 언제 조성된 것인지, 어느 스님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묵묵히 세월을 견디고 있다. 특히 동부도는 무너져 있던 것을 1960년에 복구하였다고 한다.

절을 나와 마을로 내려오니,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어느 집 앞에 몇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다. 망해마을이다.

"주로 여기도 용왕제 위주로 많이 하대, 칠석 백중 때 용왕제를 주로 올리대요."

처용이 용왕의 아들이었다는 설화를 뒷받침하듯, 절에서는 지금도 용왕제 위주의 제를 올린다고 한다.

"전에는 작았습니다. 아홉 가구에서 열 세 가구로 늘었어요. 옛날에는 이 동네 없었거든, 동네 주차장 있는 데(마을 이) 있었고, 인자 이 마을은 한 오십 년 됐지."

고속도로 너머에 있는 마을이 원래 있었던 마을이고, 마을이 커지면서 한 집 두 집 이쪽에 터를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옛 마을과 새로 생긴 마을 사이로 도로가 뚫리게 되었다.

"임진 때 불 태와뿌고, 새로 지아가, 지금 지아가 있는 절은 몇 십년 안 되었다. 절에 일 있을 때 참 마이 해줬어. 요새는 안 해준다."

이내 이야기는 스님들에 대한 것으로 이어진다.

"절 아래 있으면서, 유래고 뭐고 밝히는 거, 이웃사촌으로 할 말이 아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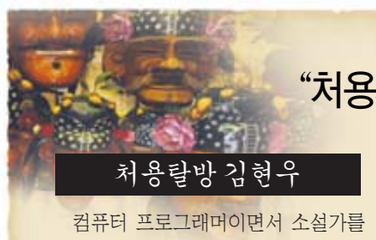
대를 이어 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력을 밝히게 되면, 이웃 간에 얼굴이 붉어질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나온 말이다. 더 묻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 물었다.

"이 동네는 다른 교는 없심다. 다 불교지. 다른 절로 가더라도 다 불교지."

천 년 전 한 사내는 자신의 부인과 놀아난 역신을 용서하였다. 그 용서의 춤사위를 떠올리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각박한 삶은 내가 만든 것이다. 얽히고설킨 마음의 실타래를 가만 내려두고 볼 일이다. 용서를 모르고서 어찌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차가운 겨울날, 용서의 맨살로 눈물 흐르는 자신의 볼을 부빌 일이다. 용서는 힘이 세다.

울산=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처용의 미소 되살리고 싶어"

처용탈방 김현우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면서 소설가를 꿈꾸던 한 청년이 어느 날, 펜을 잡던 손으로 조각칼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5년 가까이 조각에 미쳐 작업을 해 오던 그가 1회 전시회(1995년)를 열게 된다. 처용탈을 복원한 김현우(53 · 사진)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김춘수 선생의 시집 <처용단장>이라고 있어요. 어느 날 그것을 보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

<삼국유사>를 보면, 동해 용왕이 나타난 곳은 울산시 개운포. 헌강왕이 용왕을 위해 절(망해사)을 지으라 하자, 용왕은 아들들과 함께 나타나 감사의 춤을 추었다. 그 아들 중 하나가 처용.

그의 작업이 더욱 소중한 것은, 일제에 의해 왜곡된 처용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처용의 모습을 복원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복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처용과 관련된 글이라면, 고서나 논문을 가리지 않고 찾아보았다. 어쩌면 그는 처용의 모습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행을 하고 있는 셈.

"향가라고 떠드는 것은 일연 스님이 만든 것이지. 일연 스님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재편집 했거든요."

향가로 남은 '처용가'와 고려가요로 남은 '처용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나서 그가 부연한 말이다.

"처용은 아랍상인이란 말은 안 맞다 생각해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처용이 서울이 아니고, 울산에 나타났다는 것은 좀 그래요. 또 <악학궤범>에 있는 그림은 부적으로 내려오면서 과장되었을 수도 있고."

처용탈을 나무 조각으로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옻칠한 삼베로 만든다.' 그렇게 <악학궤범>에 나오거든요. 삼베 한 겹 모시 한 겹, 삼베, 모시 이렇게 네 겹으로 하고 그 위에 황토를 발라서 하죠."

그의 공방에는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처용탈이 가득하다. 모양도 조금씩 다르다. 조선시대 풍속화 같은 데서 처용탈을 발견하면, 그는 곧장 작업에 들어간다. 그렇게 조금씩 처용의 얼굴을 찾아가는 것이다.

처용의 미소를 되살리고 싶다는 그가 처용처럼 환하게 웃는다.

"우리 아(아이)가 후계자 자처하대."

자식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가 크게 웃어도 좋을 날이다.